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2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2월 22일) 2021년 2월 3일 수요일

온라인 템플스테이로 '코로나' 파고 넘는다

불교문화사업단 1월 28일 신년기자회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한 템플스테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홍보와 디지털 콘텐츠를 강화한다. 또한 지난해 많은 호응을 받았던 방역관계자 ·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익 템플스테이도 확대해 코로나19 극복에 일조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1월 28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올해에도 이어지는 만큼 사업들의 초점은 '코로나19 극복' 과 '포스트 코로나' 로 맞춰졌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며 지난해 많은 호응을 받았던 사회공익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확대키로 했다.

코로나19를 극복 하기 위한 공익적인 템플 스테이 강화 체험기 등 유튜브도 활용해 비대면 불교 문화체험 유도 2022년 20주년을 맞이하여 중장기적 발전 계획 모색도

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해 의료방역 관계자 2400명, 소상공인 · 여행업계 관계자 3500명에게 사회공익 템플스테이를 무료 운영하며 휴식의 시간을 제공했다. 또한, 코로나 블루(우울증) · 레드(분노)에 대한 사회치유를 위해 '대국민 코로나19 특별치유 템플스테이' 를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2만4000여 명의 국민이 사찰을 찾아 몸과 마음을 쉬어갔다. 의료방역 관계자와 소외이웃 등 1만 6000여 명에게 사찰음식도시락과 간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코로나19가 끝나는 날까지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이 마음 놓고 쉬어갈 수 있도록 토닥토탁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했던 쓰담쓰담 템플스테이의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이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교문화사업단은 쓰담쓰담 · 토닥토닥 템플스테이와 같은 무료 사회공익 템플스테이에는 지난해 많은 피해를 입은 문화 · 예술 · 공연계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치유 템플스테이의 경우 참가비 할인 지원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경 스님은 "현재 운영 중인 사회공익 템플스테이를 전년 대비 70%이상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통한 대국민 힐링과 사회통합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원경 스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과 온라인이 중심 키워드"라고 전망하며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불교문화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교문화사업단은 △온라인 홍보 △방송 영화 제작 지원 △사찰음식 온라인 주간 △웹툰 · 영상 ·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개발 △템플스테이 웹진 운영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확대된 국내외 관광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템플스테이의 지역 연계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방공항 · 기차 등 템플스테이와 지역문화관광을 연계한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며, 템플스테이 외국인 전문 사찰 육성 · 통역 인력 양성을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제관광 수요 회복에 대비할 계획이다.

2022년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이해 중장기 발전 계획 마련도 올해 불교문화사업단의 주요 사업이다.

원경 스님은 "2002년 탄생한 템플스테이가 청년기에 접어들며 어른으로 성장한 만큼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겠다"면서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 사업과 정책 연구 세미나를 바탕으로 템플스테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조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달라진 참가자의 니즈와 생활문화에 대응하는 시설 구축으로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이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장의 이름으로 봄이 온다

오늘은 자장의 이름으로 봄이 오고 있다.

立春, 봄이 한 발짝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봄의 전령 양산 통도사 자장매가 꽃잎을 피우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와는 다르게 분홍빛의 꽃잎들은 시시각각 진한 생명과 빛깔을 더하며 우리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 자장 스님의 이름으로 부처님 진신사리가 먼 길을 왔던 것처럼

글=박재완 기자,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 이끈 '오대산 3화상' 조명한다

월정사, 만화 선사 탄신 1백주년 기념사업 '풍성'

한암 · 탄허 · 만화선사 등 3화상의 사진전 및 세미나 사진집과 다큐영상 제작도

오대산 월정사에는 법맥을 잇는 한암 · 탄허 · 만화 스님 등 세 명의 대표 선사가 있다. 이른바 오대산 '3화상' 이다.

한암 선사(1876~1951)는 1941년부터 45년까지, 그 후 1948년에도 종정을 지내는 등 총 4차례나 종정을 역임했으며, 탄허 선사(1913~1983)는 〈신화엄경합론〉 〈육조단경〉 〈보조법어〉 등 수많은 경전을 완역했고, 인재 양성에도 힘썼다.

만화 선사(1922~1983)도 한국전쟁으로 전소된 월정사를 중창했고, 한국불교 실천적 선구자로서 만화선풍(萬化禪風)을 일으켰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를 중창한 만화당 희찬 선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불교계에 대족적을 남긴 '오대산 3화상' 한암 · 탄허 · 만화 대선사를 한자리에서 조명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월정사(주지 정념)는 올해 만화 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오대산 3화상 기념 사업' 을 기획한다. 주요 사업 내용의 골자는 △오대산 3화상 사진전시회 및 사진 도록과 사진집 발간 △오대산 3화상 동영상 제작(한암선사 1편, 탄허선사 1편, 만화선사 1편) △만화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다큐 제작 △만화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세미나 및 단행본 발간 등이다.

행사 및 사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4월 16일부터는 월정사 성보박물관서 '만화선사 100주년 기념 세미나' 를 (사)한국불교학회 주관으로 개최한다. '한국전쟁 후 오대산 등불이던 만화' 를 주제로 펼쳐지는 1부에서는 △'만화희찬의 생애 정리' (김광식) △'만화의 적광전 중창과 상량문 분석' (고영섭) △탄허의 수제자로서의 위상과 만화의 제자들' (박부영) 등을 발제한다. 이어 2부 '유네스코 복합유산 추진을 위한 연구' 편에서는 △'신효의 월정사 수조(修造)와 사명(寺名)의 특수성 검토' (자현 스님) △'오대산 중요 암자의 위치 및 동선과 시대에 따른 변화 양상 검토' (권혁진) △'오대산의 생태적 특징과 자연 유산적 가치' (이민혁) 등이 발표된다.

이어 5월부터 10월 '오대산 문화축전' 까지 약 5개월간 사진전도 열린다. 이를 위해 현각 스님(원주 성불원 주지)을 위원장으로 하는 '3화상 사진집 간행 추진위원회' 를 구성해 현재 관련 자료를 취합 중이다. 간사는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간행 위원으로는 원행 스님 삼보 스님 인보 스님이, 실무 추진위원으로는 자현 스님(월정사 교무국장), 지철 스님(월정사 미디어실장)이 맡는다. 우선 5월 사진전 오픈에 맞춰 100권 정도의 한정판 도록을 제작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내년 한암 스님 다례재에서 봉정할 예정이다.

또한 월정사 미디어실 주관으로 '오대산 3화상' 에 대한 다양한 증언과 일화를 수집해 유튜브용 동영상으로도 제작한다. 2월 초부터 만화 스님의 맞상좌인 월정사 회주 현해 스님을 시작으로 '3화상' 을 기억하는 유튜브 영상을 매주 1편씩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만화 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도 사진 자료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으로 보는 근현대 한국불교' 를 주제로 기획된다. 이외에도 월정사는 만화 스님의 생애와 세미나서 발표된 관련 학술 논문 등을 모은 단행본을 펴내, 늦어도 올 8월 8일 만화당 희찬 선사 다례재 때 봉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자현 스님은 "사진을 가지고 한국불교의 근현대를 조명해보고자 하는 것은 분명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기획으로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도 불교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근현대 한국 불교사를 정리하는 이번 기념 사업이 문도회의 자부심을 높이고, 나아가 포교 차원에서 한국불교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오대산 3화상 사진집 간행 추진위원장 현각 스님도 "부처님 법이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소홀해지지 않는 것처럼, 근본 뿌리와 연결된 역사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새로운 방식으로 오대산과 근현대 한국불교사를 정리해 전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념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월정사는 3화상 스님들의 사진을 소장한 스님이나 불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으기로 결정했다. (02)732-2403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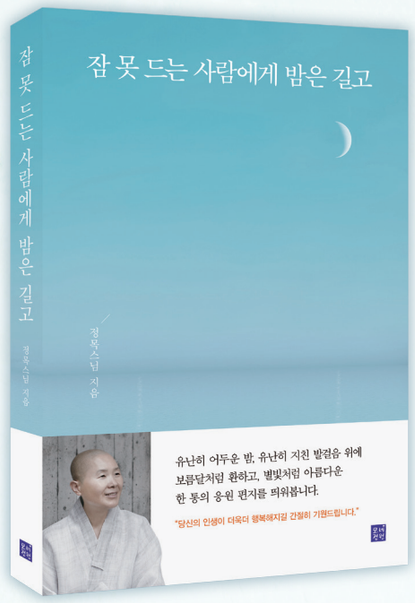
잠 못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모네의 정원 TEL. 02-2004-8253 FAX. 02-6442-1521 서울 종로구 율곡로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